

기획조사 06-023

한-아세안 FTA 체결 후
對아세안 수출유망품목

2006. 5

kotra

<요 약>

-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아세안 시장 잠식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중국은 '05.7월 아세안과의 FTA를 발효하고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일본은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함과 동시에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개별적으로 FTA 체결 및 추진 중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우리나라는 전자, 철강, 석유화학, 섬유원단 등의 품목에서 對아세안 수출경쟁력 개선 전망
 - 에어컨 및 디지털TV 등 고급가전 등은 직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로서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평판 압연제품 등 고급 철강제품 역시 중국의 저가품과 일본의 고가제품 사이에서 틈새시장 경쟁력 회복 전망
 - 스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 섬유원단 일부 제품 등도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 예상
- 자동차 및 부품 등도 장기적으로 시장진출 포석 마련 필요
 - 아세안 측의 완전 시장개방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타 경쟁국과 비교할 때 유리한 입장
 -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점진적 시장개방 약속
 - 또한 아세안 역내 생산기지를 활용한 우회진출 가능
 - 완성차 수입 시 최고 75%의 고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아세안 역내 조립용 제품 수입 시 5% 내외의 낮은 관세 부과
- 아세안시장은 가격에 민감, FTA를 통한 관세인하 효과가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다만, 상품협정 체결에 불참한 태국의 동참을 빠른 시일내에 유도, 이번 FTA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아울러 한류 등 국가이미지 제고와 FTA를 통한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 시너지 효과 거양 가능

<목 차>

I. 한-아세안 FTA체결의 의의	1
II.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수출유망품목	3
1. 태국	3
2. 말레이시아	8
3. 인도네시아	11
4. 필리핀	15
5. 베트남	18
III. 시사점	25

I. 한-아세안 FTA체결의 의의

□ 한-아세안 FTA 협상의 특징

-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나, Sector별 순차적 개방 추세
 - 상품무역(일부) → 상품무역 범위 확대 → 서비스 및 투자 등
-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전략적 FTA 성격
 - 시장 확대의 측면보다 3국간의 FTA로 상실한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한 반사적 FTA
 - 중-아세안 FTA 발효에 대한 보완적 성격

□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의 아세안 시장 잠식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중국은 '05.7월 중-아세안 FTA를 발효하고 2010년까지(후발 가입국¹⁾은 2015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일본은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함과 동시에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개별적으로 FTA 체결 및 추진 중

<중국 및 일본의 對아세안 FTA 추진 현황>

국가명	아세안	현황	비고
중국	선발가입국	'05.7월 발효	2010년까지 관세철폐
	후발가입국		2015년까지 관세철폐
일본	싱가폴	'02.11월 발효	
	필리핀	'04.11월 타결	
	말레이시아	'05.5월 타결	
	태국	'06.4월 서명예정	
	인도네시아	'06년 타결목표	

1)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 중국, 일본 등이 경쟁적으로 아세안 시장 주도권 장악을 위한 FTA 체결에 나서는 만큼 한-아세안 FTA는 경쟁 보완관계상 필수적 조치

○ 아세안은 연간 수출 274억불('05년 기준)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 추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백만불)	16,459	18,400	20,253	24,024	27,432
증가율(%)	-18.2	11.8	10.1	18.6	14.2

자료 : KOTIS

□ 최근 아세안 지역은 역내 경제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를 모색 중

○ ASEAN 10개국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AFTA 출범

- 역내 경제통합을 통해 상호 경쟁관계 해소 및 역외국과의 시장통합 도모 → 향후 NAFTA, EU 등에 비견되는 대규모 시장으로 발전할 잠재력 다대

○ 1980년대부터 아세안 각국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전개

- 우리나라 기업들도 1980년대 말부터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 투자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
→ 한-아세안 FTA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여건 호전에도 큰 기여 예상

II.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수출유망품목

1. 태국

가.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시장 여건 변화 전망

- 한-아세안 FTA 체결시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일부 품목의 對태국 수출 약 10~15% 증가 전망
-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품 중 상당수는(휴대폰 등 일부 전자제품)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FTA에 따른 현저한 수출증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품의 경우 FTA가 체결될 경우 관세부담 경감으로 태국시장 점유율 상승이 기대됨.
- 한-아세안 FTA 체결 시 태국시장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는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으로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HS Code: 8528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HS Code: 721012, 721070), 동선 (HS Code: 740811), 철강제의 기타제품(HS Code: 73269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등, 폴리우레탄의 것(HS Code: 392113),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 (HS Code: 392690) 등이 있음.
- 관련 제품별 바이어 인터뷰 결과, 품목 및 관세 인하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약 10~15%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수출유망품목

연번	품목명 (HS코드)	수입 관세율	선정근거
1	텔레비전 수신용 의 기기, 천연색 의 것 (852812)	20%	- 한국은 동 제품의 태국 최대 수출국 - 인도네시아, 중국산의 가격이 한국산보다 약 20~30% 저렴하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 - S사의 해외영업부문 담당 매니저는 한-아세안 FTA 체결될 경우 한국산의 시장점유율이 약 10~15%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	철 또는 비합금강 의 평판압연제품, 두께 0.5mm미만 의 것 (721012)	7% (2006.1.1- 12.31) 5% (2007.1.1 부터)	- 동 제품은 각종 건설, 제조업의 원자재로 사용 - '04년 태국내 공급부족으로 철강가격이 약 20% 상승 - FTA체결시 한국산의 가격이 약 10% 낮아져 수입규모는 약 10~20%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페인 트한것 (721070)	7% (2006.1.1 부터 2006.12.31) 5% (2007.1.1 이후)	- 동 제품은 각종 건설, 제조업의 원자재로 사용 - FTA체결시 한국산의 가격이 약 10% 낮아져 수입규모는 약 5~20%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4	스티렌의 중합체, 기타 (390319)	20%	- 동 제품은 각종 건설, 제조업의 원자재로 사용 - FTA체결시 한국산의 가격이 약 10% 낮아져 수입규모는 약 5~20%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5	동의 선, 횡단면 의 최대치수 6mm 를 초과하는 것 (740811)	12%	- AFTA 발효이전에는 총 수입물량의 50%는 일본, 한국, 대만에서 수입 - AFTA발효후 관세가 15%에서 5%로 인하되면서 인도네시아 등 역내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급증 (전체의 50%이상 점유) - 인니산의 가격이 한국산 대비 약 10~15% 저렴 - 한-아세안 FTA체결시 한국산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어 수입이 약 5~20%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6	철강제의 기타제품 (732690)	20%	- 한-아세안 FTA체결시 한국산의 가격이 약 10% 인하되어 수입규모는 약 10~15%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7	스틸렌의 중합체,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390330)	20%	- 태국내 제조기술의 한계에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 - 한-아세안 FTA체결시 단가 인하로 한국 수입물량은 약 1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8	플라스틱제의 기 타 판, 쉬트 등, 폴 리우레탄의 것 (392113)	30%	- 한-아세안 FTA체결시 약 10% 단가 인하로 대한 수입물량은 약 10~15%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9	알루미늄의 박, 기타 (760719)	10%	- 알루미늄은 food and beverage can, electronic goods and automobile parts and accessories의 원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한-아세안 FTA체결시 한국 수입물량은 약 10%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10	전기회로의 개폐 용, 보호용, 접속 용기기, 기타의 기기 (853690)	10%	- 동 제품의 주 수입국은 일본이나, 최근 중국산의 수입이 증가 추세 - 중국산은 일본산 대비 최고 40%가격 저렴 - 한국산은 일본산의 제품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어 FTA체결시 약 10% 정도 수입증가가 예상됨

다. 종합의견

- 지난 4월말 체결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 태국이 참여치 않은 바, 이에 대한 장기적 전략 요구
- 아세아 지역 내 경제 및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태국의 불참은 한-아세안 FTA의 근본취지를 경감
- 태국의 국내 정치가 안정되는 대로 태국의 동참을 유도할 필요

□ 경쟁국 FTA 추진일정 감안, 품목별 협상전략 필요

- 중-아세안 FTA가 기 발효되었고, 태-일 FTA도 내년 중 발효 예정임.
 - 한, 중, 일 3국과 태국 간 FTA가 비슷한 시기에 발효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FTA에 따른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전망
- 품목별 관세인하 일정이 상이함에 따라, 한국의 對태국 주력 수출품목의 경우 경쟁국의 FTA 추진일정을 감안한 품목별 협상 전략이 필요
- 우리나라의 대중국 경쟁품목 22개 중 중-아세안 FTA로 우리 제품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은 TV, 철강,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등 총 9개임
 - 점진적인 관세인하 스케줄로 급격한 한국상품 수출감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관세 인하 폭이 커지는 2010년 이후에는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
 - 상기 9개 품목 중 TV(852812), 평판압연제품(720917) 등 2개 품목은 Sensitive List에 포함되어 있어 2018년까지 관세인하가 유예
 - 4개 품목은 2007년부터, 나머지 3개 품목은 2009년부터 관세인하가 적용됨.
 - 경쟁국 제품의 관세인하 일정을 고려한 품목별 협상전략 필요

- FTA미체결 및 경쟁국의 FTA체결로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
 - 우리나라의 對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반도체, 전자제품 등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장벽이 對태국 수출의 큰 장애요인은 아님.
 - 10%내외의 관세가 적용되는 TV, VCR 등 가전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비료 등의 수출품목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FTA체결이 급속히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 차질이 우려됨.
- 한-아세안 FTA 체결 지연 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비 경쟁력 하락 우려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경우 태국시장 내에서 폴리스티렌 (3903) 등의 품목이 우리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어 한-아세안 FTA 체결 지연 시 우리나라 점유율의 하락이 우려
- 중국, 일본과 태국간 FTA 체결에 따른 경쟁력 약화 우려
 - 태국시장에서 주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포괄적인 FTA를 체결했거나,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쟁여건 약화가 우려됨.
 - 특히, 일본과의 FTA 협상은 실무협상 단계에 있고, 일본의 쌀시장 보호 문제 등으로 체결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아세안 FTA 협상보다는 조기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

2. 말레이시아

가.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시장 여건 변화 전망

- 한-아세안 FTA 체결로 일부품목은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기대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1위), 모니터(3위), 핸드폰(4위), 컴퓨터부품(6위)은 이미 영세율이 적용
 - 승용차(2위)는 말련 정부의 자국산업 보호 정책에 따라 장기간 개방을 미루어 왔던 품목임.
 - 철강의 경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주력 수출품목(ex.냉연강판)에 있어서는 한-아세안 FTA 체결로 대말련 수출이 유리한 경쟁여건에 놓이게 되었다기보다는 일본, 중국 등 주변 경쟁국들과 동등한 경쟁여건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
- 2005년 중국은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였고 특히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여 철강 및 자동차 부분에서의 단계적 시장개방을 이끌어 낸 바 있음.
 - 이외에도 AFTA를 비롯 아세안과 한, 중, 일 사이에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는 FTA 동향을 잘 분석하여 품목별로 관세로 인한 수출 장애를 최소화하고 생산 및 수출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전략 필요

나.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수출유망품목

연번	품목명	수입 관세율	선정근거
1	3,000cc이하 승용차	50%	최근 한국산 자동차 이미지 제고에 따라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며(전년대비 20%성장) FTA 체결에 따른 관세 하락시 추가적인 수출 확대기대
2	철강판	50%	현재는 일부분야(자동차, 전기전자 등)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에만 관세면제 조치가 적용되어 건설 등 비면세 분야에서는 경쟁국대비 불리한 여건에 있어 왔음.
3	선박	0-25%	선박의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관세가 적용되며 대 말련 수출은 전년대비 48%가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상대적으로 진출이 미진했던 소형 선박부분의 관세가 낮아질 경우 추가적인 수출 증가 기대
4	범용기계	0-50%	기존 말련시장은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싱가포르 제품의 주로 점유하여 왔으나 최근 한국산 기계 및 부품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 관세인하시 가격 경쟁력 제고에 따른 호조 예상
5	에어콘	25-30%	고급 가전 완제품의 경우 기술상의 이유로 25~30%의 고율의 관세를 부담하고 한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한류 확산 및 우리기업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시 수출 확대가 기대됨
6	고급TV		
7	냉장고		
8	섬유	0-30%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국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관세인하시 수출 증가 예상
9	과일	30%	열대과일을 제외한 사과, 배, 감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세인하시 일본과 동등한 경쟁조건 확보 가능

다. 종합의견

시장개방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철강제품 및 자동차 제품

-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에 대해 3000cc 이하의 완성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2015년까지 5% 이하로 낮추기로 합의
- 일본 역시 말레이시아와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철강제품은 10년 이내에, 자동차 제품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음.

○ 가전제품

-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삼성, LG 등 우리기업이 가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 완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고관세가 낮아질 경우 우리제품의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수출시 애로사항 : 수입허가권

- 예를 들어, 철강 산업의 경우 말련내 업체와 수출을 체결한 후에도 건별로 MITI(통상산업부)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수입허가의 지연이나 불허시 영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수입쿼터 및 수입허가권 등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여 우리기업의 수출확대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3. 인도네시아

가.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시장 여건 변화 전망

- 인도네시아 시장은 식민지배 등 역사적으로 현지 시장진출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오래된 일본과, 지리적·경제적으로 인니와 가까운 중국의 인도네시아 공략이 강화되는 상황
 - 중국이 전 분야에 걸쳐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인니시장점 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도 점차 개선되면서 인니시장에서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최대 경쟁국으로 부상
- 또한 ASEAN 국가들도 경제발전에 따라 주요 주요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AFTA에 따라 유리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품목 중 대한 수입관세율과 AFTA 역내관세율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 철강제품, 직물류,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들임.
- 인도네시아 시장은 품질 및 가격위주 시장으로 양분할 수 있으나, 여타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가격조건이 우선시 되며, 최종소비자들도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격 중심의 시장임.
-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 등에서 관세가 인하되면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나.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수출유망품목

○ AFTA 역내외 관세율 차이가 있는 품목 중 ASEAN 및 일본, 대만 등과 경합중인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

- ASEAN과 경합품목 : 석유화학(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철강, 자동차부품, 식물
- 대만과 경합품목 : 식물류, 철강, 플라스틱제품, 식물
- 일본과 경합품목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연번	품목명 (HS코드)	수입 관세율	선정근거
1	합성 필라멘트 직물 (540761)	15%	-HS 6단위 기준 우리나라의 대인니 수출 12위 품목 -대만,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감소세 -특히 ASEAN 국가등과 10%의 관세차이가 없으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 -한-ASEAN FTA 타결 시, 중국제품 견제 및 대만산과의 경쟁이 가능
2	철·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720916) (720917) (720918)	0-12.5%	-HS 6단위 기준 '04년 9천1백만불에서 '05년에는 1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 수출증가 -주요 경쟁국은 일본, 태국, 대만, 중국 등으로, FTA 체결 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로 10% 이상의 수출증가세 지속 예상
3	폴리프로필렌 (390210)	5-10%	-'04년 4천8백만불, '05년 1-11월 3천9백만불 수출로 HS 6단위 기준 11위 품목 -주요 경쟁국은 싱가포르,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기존 ASEAN 국가들과의 관세차이가 5%였는데, FTA 체결 시 관세인하는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4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평판압연제품 (721012)	15%	-'04년 86% 증가, '05년 11월 현재 6.6% 증가 -주요 경쟁국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으로, FTA가 타결로 관세가 철폐되어, AFTA 관세율(5%)과 같은 수준으로 되면, 중국, 말레이시아의 저가공세에서 벗어나면서, 두자리수의 수출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임.
5	자동차 (870321)	25-70%	-인니는 완성차에 대하여 40% 이상의 고관세를 부

	(870322) (870323)		<p>과하고 있으며 조립생산차(CKD)에 대해서는 25~3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p> <p>-ASEAN 국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5%의 저관세를 부과하고 있음</p> <p>-일본은 현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인니 자동차시장의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으며, 태국 등 ASEAN 인근지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p> <p>-FTA 타결로 자동차 시장이 개방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시장진출 크게 증가 예상</p>
6	자동차 부품 (870829) (870899)	15%	<p>-일본이 전체시장의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으며, 태국, 싱가포르, 말련 등 ASEAN 국가로부터 주로 수입</p> <p>-일본은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OEM용 부품 수출</p> <p>-관세인하로 동등한 관세를 부과받게 되면 국산차 수출증대에 따라 OEM용 뿐 아니라, After 마켓용 제품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p>
7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842952)	10%	<p>-Shovel 및 굴삭기 등 주로 건설중장비용 제품으로 인니의 석탄광산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수요가 지속 증대될 전망</p> <p>-일본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태국, 싱가포르 등이 ASEAN 국가로서 무관세를 누리며 가격 경쟁력 우위 유지</p> <p>-우리나라는 '04년 3천1백만불을 수출하였으며 '05년 1-11월 기준 2천4백만불 수출 기록</p> <p>-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 제고 및 시장수요 증대에 따라 우리나라제품의 수출 증대 예상</p>
8	폴리에틸렌 (390110) (390120)	5-10%	<p>-주요 경쟁국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등이며, 우리나라는 ASEAN 경쟁국가에 비하여 5%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p> <p>-FTA 체결 시 관세인하로 인하여 두자리수 이상의 수출증가세 회복 기대</p>
9	면직물 (520931) (520932) (521031) (521032) (521041) (521049)	10%	<p>-우리나라제품이 시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가격차이로 인하여 점차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등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음</p> <p>-ASEAN 국가에 비하여 5-10% 높은 관세를 부과 받고 있음에 따라, FTA 타결이 되면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수출증가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p>
10	직조 레이블 (580710)	10%	<p>-'05년 11월 기준, 50 % 수출증가 기록</p> <p>-FTA 체결 시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수출증가 기대</p>

다. 종합의견

- ASEAN 국가와 관세율 격차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자동차로서 최소 20%에서 최대 75%까지의 관세율 차이가 있음.
 -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CKD 자동차에는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완성차의 경우는 40% 이상의 고관세를 부과
 -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상품협정에서는 현지 조립생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완전 무관세, 승용차는 2016년까지 5%로 관세 인하 등을 합의
 - 일본 기업들은 CKD 형태로 수입하여 현지 조립생산 하고 있으며, 태국, 필리핀 등지의 부품공장을 활용, 5%이내의 저율 관세로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음.
- 자동차 외에 역내외 수입관세가 격차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철강제품, 석유화학제품, 직물류 등으로, AFTA 역내국과 대만,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철강제품은 일본, 중국 등과 경쟁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저가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FTA 타결에 따른 관세인하는 인니시장 수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석유화학 제품은 관세율 차이가 미미하나, 중국,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 경쟁을 하고 있어, FTA 체결은 경쟁여건 호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직물류는 중국 및 동남아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나, FTA가 타결되면 당분간 현 수준의 수출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필리핀

가.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시장 여건 변화 전망

- 우리나라의 대필리핀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및 전기전자 부품의 경우, 이미 무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전무
- 가전제품 및 일반 공산품의 경우, 현지진출 국내기업들은 중국, 동구권 등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로 다변화한 까닭에 FTA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FTA체결 이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철폐 또는 인하될 경우, 일부 수출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본적인 제품 단가의 차이로 인해 가격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철강 및 대형차, 플라즈마 TV 등 고급 가전제품의 경우, 일본-필리핀간 FTA 체결로 인해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품목임.
- 특히, 철강 및 자동차부품, 비료 등은 일본과의 경쟁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어, 금번 한-아세안 FTA를 통해 경쟁여건 보완 및 우위확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

나.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수출 유망품목

연번	품목명 (HSCode)	수입 관세율	선정근거
1	세제원료 (340211)	7% (3%)	일본과 경합 치열, 일본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업체 수출영향 심각
2	복합비료 (310520)	3% (3%)	일본과 경합 치열, 일본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업체 수출영향 심각
3	HDPE (390120)	15% (10%)	일본과 경합 치열, 일본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업체 수출영향 심각
4	LDPE (390110)	15% (10%)	일본과 경합 치열, 일본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업체 수출영향 심각
5	PP (390210)	15% (10%)	일본과 경합 치열, 일본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업체 수출영향 심각
6	열연강판(HRC) (7208)	3% (3%)	일본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업체의 수출(연 24만불)에 영향 심각
7	냉연강판 (7209)	3% (3%)	일반유통시장, 가정용, 소재용시장 : 일본과 치열한 경합상태로 일본의 FTA체결시 영향 심각
8	석도강판 (7204)	0% (0%)	한국, 일본, 대만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무관세이고 현지 제조업체 부재로 가격 경쟁력이 시장 지배력을 좌우함.
9	전력선 (8544)	7% (5%)	일본과 경합 치열, 일본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업체 수출영향 심각
10	전력탑 (730820)	3-10% (0-5%)	일본과 경합 치열, 일본의 FTA 체결에 따른 국내업체 수출영향 심각

주 : 수입관세율 항목의 괄호안의 비율은 아세안 회원국간 적용되는 관세율임.

다. 종합의견

- ASEAN지역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일본 및 중국과 첨예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본 및 중국이 추진하는 對ASEAN FTA 효과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경쟁력에 많은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이들 국가들의 FTA가 본격 발효되기 앞서, 우리나라와 ASEAN간의 FTA를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본 및 중국의 FTA 체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도 동 경쟁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FTA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철강의 경우 일본산에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면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산은 경쟁력을 완전 상실하게 됨.

5. 베트남

가.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시장 여건 변화 전망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높은 수입증가율로 베트남 시장 내 세계 각국의 경쟁 격화

- 경제성장률 : 7.47%('04) → 8.4%('05) → 8%('06 전망)
- 수입증가율 : 27.9%('03) → 26.5%('04) → 18.1%('05)

□ 베트남은 “세계경제로의 적극적인 편입을 통한 빠른 경제성장”을 모토로, 아세안국가 간 AFTA와 아세안-중국 FTA 등 2개의 FTA 체결

- 아세안 후발가입국인 베트남은 선발가입국보다 개방일정을 연장 적용
 - AFTA의 경우 2006년부터 96%(약 10,283품목)의 품목에 대한 역내 수입관세가 0~5%로 조정
 - 아세안-중국 FTA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관세인하 계획이 발표된 상태

□ 베트남의 5대 수입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한국

- 우리나라는 중국이 1위로 등극한 2003년부터 5위로 추락
 - 2005년 11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출증가율이 12.5%에 그쳐, 중국 34.1%, 태국 32.7%, 싱가포르 27.4%, 대만 18.8%, 일본 18.5%에 대비

- 시장점유율도 2004년 10.4%에서 9.8%로 하락
 - 중국 13.9%→15.4%, 싱가포르 11.3%→12.2%,
 - 대만 11.6%→11.8%, 태국 5.8%→6.5%

□ 싱가포르, 태국의 급성장은 A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은 향후 중-아세안 FTA 본격 발효 시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시점에,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의 FTA 체결은, 가격에 민감한 베트남시장에서 한국 수출이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

○ 베트남이 시장개방 일정에서 다소 예외를 인정받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제품이 아세안 제품과 동일한 수입관세를 적용받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높은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아세안 FTA가 체결되면, 아세안 및 중국과의 경쟁여건이 동일해지게 되며, 대만, 일본보다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직접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대만과의 경쟁에서의 우위를 특특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대베트남 주요 수출국 현황>

Unit: US\$ 1,000 & %	2000	2001	2002	2003	2004	11/2005
TOTAL	15,636.5	16,218.0	19,745.6	25,255.8	31,953.9	33,580.7
Growth rate		3.7	21.8	27.9	26.5	18.1
China	1,401.1	1,606.2	2,158.8	3,138.6	4,456.5	5,187.8
Rank	(5)	(5)	(5)	(1)	(1)	(1)
Growth rate	108.2	14.6	34.4	45.3	41.9	34.1
Ratio	9.0	9.9	10.9	12.4	13.9	15.4
Singapore	2,694.3	2,478.3	2,533.5	2,875.8	3,618.5	4,112.2
Rank	(1)	(1)	(1)	(4)	(3)	(2)
Growth rate	43.4	-8	2.2	13.5	25.8	27.4
Ratio	17.2	15.2	12.9	11.3	11.3	12.2
Taiwan	1,879.9	2,008.7	2,525.3	2,915.5	3,698.0	3,947.6
Rank	(3)	(3)	(2)	(3)	(2)	(3)
Growth rate	20.0	6.8	25.7	15.5	26.8	18.8
Ratio	12.0	12.4	12.7	11.5	11.6	11.8
Japan	2,300.9	2,183.1	2,504.7	2,982.1	3,552.6	3,716.3
Rank	(2)	(2)	(3)	(2)	(4)	(4)
Growth rate	42.2	-5.2	14.7	19.0	19.1	18.5
Ratio	14.7	13.4	12.6	11.8	11.1	11.1
Korea	1,753.6	1,886.8	2,279.6	2,625.4	3,328.4	3,304.3
Rank	(4)	(4)	(4)	(5)	(5)	(5)
Growth rate	18.0	7.5	20.8	15.1	26.7	12.5
Ratio	11.2	11.6	11.5	10.4	10.4	9.8
Thailand	810.9	792.3	955.2	1,282.2	1,858.1	2,179.3
Rank	(6)	(6)	(6)	(6)	(6)	(6)
Growth rate	44.3	-2.3	20.6	34.2	44.9	32.7
Ratio	5.2	4.9	4.8	5.1	5.8	6.5
ASEAN	4,449.0	4,172.3	4,769.2	5,949.3	7,762.2	8,513.8
Growth rate	35.2	-6.2	14.3	24.7	30.5	25.0
Ratio	28.5	25.7	24.3	23.5	24.3	25.4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al Office), 무역부(Ministry of Trade)

나.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수출유망품목

품목명 (HS코드)	수입 관세율	선정근거
자동차부품 (spare parts) (8706,8708)	30%	<p>-베트남 시장은 완성차 수입관세가 90%로 매우 높아, 대부분 부품을 CKD, IKD(수입관세 10~25%)로 수입하여 11개 조립공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띠며, 이 분야의 자동차 부품은 베트남 내 조립공장이 많은 일본산이 강세</p> <p>-그러나,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트럭, 특수용차량, 버스, GM대우/쌍용/기아 등의 현지 조립 한국차량에 대한 spare parts 시장은 한국산이 강세를 띠고 있음</p> <p>-HS Code 8706의 경우 한국산의 수출액과 증가율은 2003년 1570만불/403.2%, 2004년 2300만불/46.9%, 2005년 11월말 현재 2140만불/11%를 기록</p> <p>-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인하되면 중국과는 동등한 위치, 대만, 일본보다는 확고한 우위를 점하여 연간 20~30%의 수출증가 예상</p>
섬유원단 (5208, 5209, 5210, 5211, 5212, 5407, 5408, 5512, 5513, 5514, 5515, 5516)	40%	<p>-베트남산 원단은 품질이 열악하여, 전체 소비 원단의 70%이상이 수입에 의존</p> <p>-원단 수입액과 증가율은 2003년 13억6460만불/36.8%, 2004년 19억2670만불/41.2%, 2005년 11월말 현재 21억 7590만불/25.2%를 기록</p> <p>-베트남 섬유원단시장은 수출용, 내수용의 2가지 시장으로 구분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원단수입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임가공 형태의 한국투자진출기업수가 많아 큰 문제가 없으나 · 내수판매용 원단 수입의 경우 4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저가의 중국산이 시장 점유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0~5%의 관세적용을 받는 아세안산 원단수입 증가세 <p>-이에, 한국산 원단 수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중으로 HS Code 5208은 -35.9%, 5210은 -9.1%, 5211은 -5.7%, 5407은 -14.2%, 5512는 -2.3%, 5513은 -5.1%를 기록</p> <p>-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중국과는 동등한 위치, 대만보다는 확고한 우위를 점하여 연간 15~20%의 수출증가 예상</p>

<p>인조가죽 (5903)</p>	<p>30~40%</p>	<p>-베트남은 신발/가방 제조용 인조가죽 수요가 많으나, 현지 생산이 열악하여 수입에 의존 -한국산 인조가죽이 품질과 디자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03년 1억1130만불, 2004년 1억3310만불, 2005년 11월말 현재 1억1230만불로 꾸준히 증가세 -수출용 원부자재로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이나, 내수용의 경우 높은 수입관세로 인해 대만, 중국, 아세안(태국)에 가격경쟁력 열위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중국과는 동등한 위치, 대만보다는 확고한 우위 예상</p>
<p>화장품 (메이크업, 스킨케어) (3304.10, 3304.99)</p>	<p>50% 20~30%</p>	<p>-베트남의 화장품 소비는 소득증가와 맞물려 점점 늘어나는 추세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액과 증가율은 2003년 2260만불/44.9%, 2004년 3530만불/56.2%, 2005년 11월말 현재 4890만불/50.0%를 기록 -한국산 화장품 수입은 HS Code 3304.10의 수입액과 증가율은 2003년 42만불/18.2%, 2004년 48만불/12.8%, 2005년 11월말 현재 53만불/20%이고, 3304.99의 경우, 2003년 340만불/10.8%, 2004년 490만불/45.1%, 2005년 11월말 현재 500만불/21.1%로 꾸준한 증가세 -화장품은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수입관세가 높아 비공식적 수입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현재 ASEAN의 5% 수준으로 인하되는 경우 한류의 직접적인 후광효과 등으로 인해 연간 30~50% 수출 증가 예상</p>
<p>종이류 (4802) 크래프트 종이 (예: 비료 포장용 종이, 4804) 코트지 (4810)</p>	<p>40~50% 10~30% 5~10%</p>	<p>-베트남 종이 수입액과 증가율은 2003년 2억3050만불 2004년 2억4800만불, 2005년 11월말 현재 3억2350만불 기록 -한국산 종이의 경우 관세가 높아 수입량이 미미하며, 관세가 낮은 코트지(5~10%) 정도가 수입되고 있음 -종이류의 주 수입원은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임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종이의 수입관세는 2006년부터 0~5%가 적용되어 매우 유리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현재 아세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되는 경우 시장확대 유망</p>

<p>오토바이 (8711)</p>	<p>100%</p>	<p>-베트남 정부는 자국 오토바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0%의 수입관세 부과 및 중고 오토바이 수입금지 조치 발효 중</p> <p>-오토바이 수입액은 2004년 3940만불, 2005년 11월말 (환)재 5510만불로 101%의 증가세</p> <p>-한국산 오토바이 수입은 1996년 6310만불에서 2004년 20만불로 급전직하</p> <p>-한국산 오토바이가 일본산에 비해 인지도는 낮으나,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p>
<p>소형 가전 제품 -헤어드라이어 (8516.31) -다리미 (8516.40) -전자렌지 (8516.50) -전자밥솥 (8516.60) -보온병 (8516.79)</p>	<p>40%</p>	<p>-한국산 소형 가전제품(HS Code 8516) 수입액은 2003년 170만불, 2004년 190만불, 2005년 11월말 현재 180만불을 기록</p> <p>-현재 주 수입국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저가품 가격경쟁력 보유 · 태국, 말레이시아는 AFTA 5% 관세 적용 <p>-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한국 전자제품의 높은 인지도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발휘, 수출 증가 기대</p>
<p>문방용품 (3926.10, 9608, 9609)</p>	<p>30~40%</p>	<p>-학생용품, 사무용품 소비가 증가세에 있으며, 한국산은 예쁜 디자인과 품질로 인지도가 매우 높음</p> <p>-현재 한국산 문방용품의 대베트남 연간 수출액은 150만불 이하일 것으로 추정</p> <p>-중국산이 저가공세로 시장을 점유</p> <p>-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인하되는 경우,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한 한국산 문방용품의 수출 증가 예상</p>
<p>자동차 타이어 (4011.10, 4011.20)</p>	<p>40%</p>	<p>-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 타이어 수요도 증가</p> <p>-2001년 53만대에 불과하던 자동차수는 2005년 11월말 현재 86만대로 증가</p> <p>-한국산 타이어 수입은 1996년 830만불에서 2005년 11월말 현재 130만불로 크게 감소</p> <p>-주 수입국은 인도,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p> <p>-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아세안의 5% 수준으로 인하되는 경우, 인도, 일본, 대만에 비해 가격 경쟁력 회복 전망</p>

의류 (6103, 6104, 6105, 6106, 6109, 6110, 6203, 6204, 6205, 6206, 6209, 6210)	50%	-베트남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기성복 의류 구입으로 패턴 전환 중 -그러나, 수입 의류 물량이 매우 적은데 이는 50%에 달하는 높은 수입 관세에 기인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관세는 5%에 불과하여 최근 태국산 의류 수입 증가세 -한국 의류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아,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관세가 아세안 국가 수준으로 인하되는 경우, 수입증가폭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
-----------------------------------------------------------------------------------------------	-----	-------------------------------------------------------------------------------------------------------------------------------------------------------------------------------------------------------------------------------------------------------

다. 종합의견

-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아세안 국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무역 흑자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
 -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중국, 대만, 아세안 국가들에 점차 밀리는 형국에서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확실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원부자재, 기계, 철강, 석유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인데, 이중 고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내수용 원단(수출용 원단은 무관세 적용), 자동차부품 등임.
 - 베트남은 AFTA에서도 완성차의 경우 TEL(Temporary Exclusion List)에 넣는 등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의 의지가 강력한 바, 한-아세안 FTA에서도 시장개방을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
 - 자동차부품의 경우, AFTA에서 IL(Inclusion List)에 넣어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5%의 수입관세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에서도 최소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Ⅲ. 시사점

- 최근 세계적 FTA협상은 당사국간 경제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경제협력 관계 모색으로 진행
 - “산업별 타겟 시장”을 겨냥한 FTA도 증가
 - 일본의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태국과의 FTA
 - FTA 체결국에 대한 정부조달시장 진출 수혜 확대
 - 시장점유율 회복을 위한 전략적 FTA 증가
 - 중-아세안 FTA 발효이후 일본과 우리나라가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중점 추진
 - FTA 체결국간의 교역 비중 증가
 - 일본 : 2.9%('05) → 10.8%('06)
 - 중국 : 19.6%('05) → 19.8%('06)
 - 한국 : 0.5%('05) → 10.3%('06)
 - 부분적 선자유화 조치의 확대
 - 인도-태국간 82개 품목에 대한 선자유화 조치(Early Harvest Program) 등
 - 양자간 합의에 따라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및 관세감축 합의(Coverage 감소)
 - 단, 진정한 의미의 실질적인 자유화와는 다소 거리
- 한-아세안 FTA는 우리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며, 현지진출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 관계 모색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시장개방 대상 및 분야 등도 경쟁국과 아세안 간 FTA 협상 내용과 결과를 주시하는 등 상대적 관점 유지 필요
- 우리나라는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는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 자유화 추진
 - 아울러 對아세안 시장 수출 주력품목의 관세인하에 합의
- 아세안 시장은 비교적 가격에 민감한 시장으로서 FTA 발효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
 - 현지 바이어 의견 조사 결과, 관세인하가 평균 10~15%의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품목은 관세인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
- 금번 FTA를 통해 수출경쟁력 개선이 기대되는 품목이 시장 개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아울러 금번 FTA는 우리 상품의 아세안 시장 내 인지도 제고 및 해외투자환경 개선에도 큰 효과 기대
 - 한류 등 아세안 지역 내 국가 이미지 상승과 FTA를 통한 경제협력 관계 확대 간 시너지 효과 거양
 - 현지진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으로 아세안 역내 최적 생산 체제 구축 가능